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무한 비상 중 <미세스 캡> 이어 월화드라마 3파전에서 완승



지상파 3사가 새로운 월화드라마로 대격돌한 10월 5일(월), 승자는 예상대로 <육룡이 나르샤>(극본 김영현·박상연, 연출 신경수)였다. 작가와 출연 배우의 이름만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몰고 온 <육룡이 나르샤>는 첫방에서 시청률 13.5%(닐슨코리아/수도권)를 기록, MBC <화려한 유혹> 8.8%, KBS <발칙하게 고고> 2.4%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육룡이 나르샤>는 시작부터 압도적인 스케일과 수려한 자연 풍광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웅장한 음악과 영화 같은 화면 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뿌리 깊은 나무>와 <선덕여왕>을 공동 집필했던 김영현, 박상연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는 시청자들을 고려 말의 혼탁한 상황으로 이끌며 권문세족들의 횡포와 민초들의 비참한 현실에 같이 분노하게 하였다. 믿고 보는 배우 김명민, 천호진과 첫 등장부터 강렬했던 유아인, 변요한, 소름 돋는 이종원, 박혁권 등의 명품 연기는 마치 연기의 경연장을 보는 듯 했다. 아역 배우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신경수 감독은 이 모든 것을 버무려 <육룡이 나르샤>를 창사 25주년 특별기획다운 대작으로 빛어냈다.

두 작가가 그동안 수없이 다뤄진 여말선초의 이야기를 또다시 들고 온 데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룡이 나르샤>는 액션 사극임을 내세워 무한의 상상력을 펼쳐 보이며 기존의 조선 건국사를 다룬 수많은 사극과의 차별점을 확실히 하였다. 또 김영현 작가는 기자 간담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다”고 확실히 못 박은 바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육룡이 나르샤>는 ‘용비어천가’ 1장에서 따왔고, 작가들의 전작인 <뿌리 깊은 나무>는 2장에서 따온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세종 대에 꽃 핀 찬란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라면, <육룡이 나르샤>는 그 토양을 마련하는 여말선초의 이야기로, 프리퀀에 해당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육룡은 이성계의 여섯 선조를 가리키지만, 드라마에서는 실존 인물 이성계(천호진), 이방원(유아인), 정도전(김명민)과 가상의 인물 이방지(변요한), 무휼(윤균상), 분이(신세경) 등 6인을 가리킨다. <뿌리 깊은 나무>가 남긴 여운을 못 잊는 팬이라면 조진웅과 우현이 미친 연기력을 선보인 무휼과 이방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육룡이 나르샤>에서 지켜보는 재미도 적지 않다.

6인의 주인공이 꿈꾸는 세상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제작진이 이번에는 또 어떤 묵직한 주제를 던질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는 50부작의 긴 여정을 향해 무한 비상 중이다.

퍼즐을 하나씩 꿰맞추는 재미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명품 미스터리 스릴러로 시청자 몰입도 최고조 이끈다

새 수목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이 10월 7일(수) 첫 방송되었다. 연기력의 보증수표 문근영과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스타 육성재가 주연을 맡은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SBS가 야심차게 내놓은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이다.

‘작은 연못’이라는 뜻의 아치아라는 평화롭다 못해 단조로운 일상의 평범한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 발신인이 아치아라로 적힌 편지 한통을 들고 운명처럼 흘러들어온 캐나다 교포 소운이 오래된 백골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신을 둘러싼 마을의 추악한 비밀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한다.

방송에 앞서 10월 6일(화)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문근영, 육성재, 신은경, 온주완, 장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용석 감독은 “드라마 자체가 하나의 퍼즐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퍼즐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를 언급했다. 또 “우리 드라마는 3가지가 없다. 멜로가 없고, 연기 못하는 배우가 없고, 쪽대본이 없다. 나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쉽지 않은데,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재미를 누리며 촬영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머리를 싸둑 자르고 새로운 각도로 드라마에 임한 문근영은 “대본이 영화같이 재미있어 다 읽기도 전에 출연을 결심했다. 16개의 퍼즐이 맞춰질 큰 그림에 기대가 간다”고 말했다.

온주완은 “배우들은 범인을 모른다. 그러나 스릴러 드라마의 정석인 권선징악의 구조



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배역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범인이 누구일지 한 회 한 회 거듭될수록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가 쏠쏠할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장르물의 명가 SBS의 자존심을 이어갈 것이다.

2015년 4분기 조희... 주변 경쟁 치열할수록 콘텐츠에 집중해야

드라마 1위 수성 · 취약시간대 경쟁력 회복 · 미래 위한 프로젝트 적극 동참



2015년 4분기 조희가 10월 5일(월) 오전 10시 목동 SBS방송센터 SBS홀에서 개최됐다. 이용모 사장은 인사말에서 킬러 콘텐츠에 대한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준 <용팔이>에 대한 치하와 함께, 새로 시작한 <육룡이 나르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이 동시간

대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또 평일 밤 9시대와 11시대, 주말 예능 및 드라마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해 회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모 사장은 또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SBS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2015년 3분기 비전실천상과 특종상, 기획보도상, 뉴미디어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5년도 3분기 비전실천상 (총 10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권기정 차장대우
아나운서팀 장예원 사원 | 편성기획팀 김지은 차장대우 | 제작본부 오학준 사원
제작본부 김정욱 사원 | 라디오편성기획팀 윤의준 사원 | 드라마본부 이정립 사원
정책사회부 조동찬 차장대우 | 시민사회부 정성엽 차장대우 | 경영지원팀 장광순 사원
- 2015년도 3분기 특종상 금상 정치부 최고운 사원
- 2015년도 3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정책사회부 김경희 차장, 조동찬 차장대우,
이종훈 차장대우, 윤나라 사원(4명 공동수상)
- 2015년도 3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문화과학부 조지현 차장대우
정치부 김태훈 차장대우

연예인 13명, 무림 고수로 돌아 온다! <주먹 쥐고 소림사> 10월 17일(토) 첫방

본격 무협예능 <주먹 쥐고 소림사>(연출 이영준, 박미연)가 10월 17일(토) 저녁 6시 25분에 첫 방송된다. 지난해 설 특집으로 방송된 <주먹 쥐고 소림사>는 연예인들이 무예의 본산 중국 소림사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과정을 담아, 유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감동을 이끌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정규 편성되어 돌아온 <주먹 쥐고 소림사>는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뉘어, 남자들은 화려한 무술과 파워풀한 동작이 특징인 북소림사에서, 여자들은 민첩한 손기술과 정제된 무술을 선보이는 남소림사에서 무림의 고수에 도전한다. 북소림사는 김병만, 육중완, 박철민, 온주완, 김풍, 이정신이, 남소림사는 김병만, 육중완, 최정윤, 유이, 구하라, 폐이, 하재숙, 임수향, 오정연이 출연한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떠오르는 예능 강자 육중완과 김풍의 조합을 '중풍'커플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보여줄 케미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영준 PD는 "13명 출연자들의 땀과 열정이 느껴지는 일주일이었다. 처음 입소할 때와 나올 때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연예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성장스토리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하반기 예능 최고 기대작 <주먹 쥐고 소림사>는 무협의 세계와 소림무술을 동경하는 시청자들의 로망을 자극할 것이다.



S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재미와 감동으로 호평 일색

<심폐소생술>, <K밥스타 어머니가 누구니>, <New 스타킹>,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등

추석 연휴에 방송된 SBS의 특집 프로그램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6일(토), 28일(월) 2부로 방송된 <심폐소생술>(연출 백승일)은 단연 화제를 모았다. <심폐소생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노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콘셉트. 원곡자들이 의뢰한 곡의 1절을 심폐소생사로 나선 가수들이 불러 소생이 결정되면, 2절은 원곡자가 등장해 함께 부른다. 숨어있는 명곡의 재발견과 과거로의 추억 여행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방송 다음날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29일(화)에 방송된 <K밥스타 어머니가 누구니>(연출 박경덕)는 집밥을 받아먹기만 하던 자식(남편)들이 엄마(아내)의 블라인드 코치 하에 직접 자신이 먹던 음식 만듦에 도전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 '요리'에 '가족'을 접목하여, 요리에 서툰 자녀와 남편이 요리를 통해 정성 반, 손맛 반의 어머니와 아내가 해주는 집밥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청률 8.1%(이하 닐슨코리아/전국)의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28일(월) 방송된 <New 스타킹>(연출 심성민)은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제보자가 먼저 등장하여 출연자를 홍보하면 연예인 패널과 기존 <스타킹> 출



연자들이 응원할 팀을 찾아 자리를 이동하고, 출연자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일 때마다 서로 대결하고 응원하는 방식은 긴장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미와 웃음을 주었다. 300만원의 우승상금을 놓고 출연자와 제보자, 패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친 <New 스타킹>은 8.4%의 시청률로 SBS 추석특집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9월 26일(토)에 방송된 추석특집극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극본 김은향, 연출 박선호)은 명절특집극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가 아닌, '웰다잉'을 다뤘다. 아빠가 죽자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인생을 냉철하게만 살아온 여주인공 미수(경수진 분)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다. 혼자 주변을 정리하던 미수는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 동수(최우식 분)에 의해 서서히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초대해 미리 하는 장례식을 치른다.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세상과의 화해'의 의미를 담은 본인이 참석하는 장례식으로 비튼 신선한 스토리에, 주인공인 경수진과 최우식의 호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유일한 추석특집극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식사하셨어요?〉 나눔으로 농촌 지역 활력 선사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쌀 나눔 재능 나눔' 프로젝트 현장 공개 행사가 9월 22일(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서 진행됐다. '쌀 나눔 재능 나눔' 프로젝트는 그동안 〈식사하셨어요?〉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직접 쌀을 수확하여 이웃과 나누면서 쌀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젝트로, 농림식품부와 파주시가 힘을 보탰다. 이날 〈식사하셨어요?〉의 두 MC 임지호, 김수로를 비롯해, 가수 이문세, 선, 홍진영, 조권, 진운, 배우 조민수, 장영남, 박건형, 김규리, 개그맨 서경석 등은 50년만의 가을 늦더위 속에서도 '논두렁 그린카페트'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쌀을 수확하기도 하며 조용한 농촌마을에 모처럼의 활력을 선사했다.

〈식사하셨어요?〉는 사연이 있는 이웃들에게 매주 자연의 밥상을 선물하러 떠나는 여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작년 11월에는 김장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한 바 있다. '쌀 나눔 재능 나눔' 프로젝트는 10월 18일, 25일(일) 오전 8시 20분에 방송된다.

〈영재발굴단〉 국악신동 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영재발굴단〉(연출 김재원, 황성준, 장경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7월)'을 수상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거장들도 인정한 10세 국악신동,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는?' 편은 강압적인 교육에 지쳐가는 영재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영재 교육에 대한 시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22일(화)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SBS 미디어그룹, 제1회 바이두 티에바 팬 카니발 참가



스마트미디어사업팀과 SBS콘텐츠허브 커머스사업팀은 지난달 29일(화)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린 티에바(팬카페) 팬 카니발에 참가했다.

티에바 팬 카니발은 중국 최대 포털업체 바이두가 바이두의 팬 커뮤니티인 티에바 회원들 간의 오프

라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로, 바이두와 협력 관계인 SBS 미디어그룹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초청 받았다. 티에바에는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런닝맨 티에바〉와 〈별에서 온 그대 티에바〉 등 SBS미디어그룹의 다양한 티에바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사업팀은 내년 초 출시될 다양한 〈런닝맨〉 브랜드 제품을 소개했으며, SBS콘텐츠허브 커머스사업팀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 사이트에 대한 프로모션을 위해 협력업체인 제니하우스 및 코리아센터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우천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팬들이 SBS미디어그룹 부스를 방문해 SBS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현지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뷰티컨설턴트 송춘호 씨〉 등 6편 극본공모 당선작 시상



SBS문화재단은 10월 2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극본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극본 공모에는 '실험적 성격의 미니시리즈'와 '단막 2부작' 두 부문에 총 1,059편의 작품이 접수돼, 이 중 1,2,3차 예심과 본심을 통과한 6편(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SBS문화재단은 방송작가들이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와 공동으로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데 이어, 작년부터 극본 공모를 시작했다.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 실험적 성격의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상(상금 3천만 원) : 이제인, 전찬호 〈뷰티컨설턴트 송춘호 씨〉

우수상(상금 1천 5백만 원) : 김지완 〈검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이해인 〈보이스〉

● 단막 2부작 부문

최우수상(상금 2천만 원) : 조은서 〈글마 가 삼촌〉

우수상(상금 1천만 원) : 김윤정 〈오래된 아픔 하나〉, 진유례 〈나의 슈퍼히어로〉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실시간으로 TV를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리뷰를 확인한 후에 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디지털세상에서의 소통이 점차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작진의 참여도 즉,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본방 제작 외에도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전용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모바일 최적화를 고민하는 제작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육룡이 나르샤〉 온라인 콘텐츠로 기대감 증폭



지난 9월 14일부터 포털 사이트 메인과 각종 연예뉴스 기사는 〈육룡이 나르샤〉의 첫 번째 용 이성계의 티저 영상 공개를 알리는 소식으로 장식되기 시작하였다. 연속 6일 동안 육룡을 한 명씩 소개하는 6개의 티저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첫 방송 이전에 이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배우들의 모습과 드라마의 분위기를 방송 전부터 다

양하게 공개하는 것은 그 동안 쉽게 볼 수 없던 사례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에서 첫 방송이 시작될 수 있었다. 특히,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드라마가 연속 6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소개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기습 공개된 판소리 콘셉트의 티저 영상에는 이방지 역의 배우 변요한이 직접 목소리 참여를 하였다. 이 영상은 새롭고 신선하다는 평가뿐만 아니라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중독성 강한 영상'으로 인기몰이를 하며 각종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촬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PD노트' 또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동윤 조연출이 〈육룡이 나르샤〉의 뜻과 출연진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PD노트'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제작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시리즈물로 제작된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육룡이 나르샤〉의 한정환 EP 이하 제작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많은



팀들이 한뜻으로 손발을 맞춤으로써 가능했다. 매주 '흙지기의 사심 노트', 배우 캐리커처 등 이슈 콘텐츠를 생산해 내며 온라인 상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육룡이 나르샤〉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다.

- SBS 콘텐츠허브 방송서비스팀

우리 프로그램은요~

15년 한결 같은 집밥의 맛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전 09:00~11:00

흔히들 집밥이 최고라고 한다. 심지어 산해진미를 다루는 셰프들도 죽음을 앞두고는 집밥을 그리워한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나를 평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만들어주는 엄마의 손맛. DJ 김창완 씨는 매일 아침 107.7 파워FM

에서 (특별할 것 없는) 손맛 하나로 아침밥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밥상이 이번 달로 15주년을 맞았다.

주로 <아침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는 뮤지션 겸 배우 김창완 씨가 매일 아침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성은 단순하다. DJ가 안양천에서 직접 잡아 올린 오프닝으로 문을 열고(김창완 씨는 15년 동안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근한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평범한 음악들과 평범한 사연들로 밥상을 차린다.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할 맘씨 좋고 솜씨 좋은 게스트들을 초대한다.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들은 <아침창> 청취자들이 문자와 사연으로 보내준다. 제작진들은 이 모든 재료들에 약간의 양념을 더해 입맛을 돋울 뿐이다. 가끔 이벤트를 하거나 입담 좋은 손님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 특별할 게 없는 걸 15년 동안 5,475번 하다 보니 특별한 게 되어버렸다.

<권법소년>이란 만화에 보면 평생 '봉권'이라는 기본기만 연마한 상운상이란 인물이 나온다. 그는 이 평범한 지르기 하나로 권법의 달인이 되었다. 김창완의 <아침창>은 매일 아침 똑같은 지르기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요리나 권법. 그리고 라디오. 이 모든 것들의 끝은 결국 '특별한 평범함'이다. <아침창>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청취자들의 일상을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파고들 것이다.

-연출 남중권 차장대우(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사우기고

음향 전문가 육성하는 맞춤 교육 시행



작년 5월 제작리소스팀에서는 일본드라마 <신의 물방울> 등의 제작에 참여한 일본 조명감독 두 사람을 초빙하여 조명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호응도나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서 SBS 내에 '음향 믹싱하면 누구'하고

떠올릴만한 믹싱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제작본부 연출진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음향 믹싱 전문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믹싱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니, 외국 교육기관은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기간이 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내 교육기관은 전문가를 교육하기에는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K-POP 믹싱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오 감독(유희열씨와 함께 프로젝트 가수 <토이>를 만든 원년 멤버이며 작곡가 겸 믹싱 엔지니어이기도 하다)을 강사로 선정하고 교육 받을 오디오 엔지니어를 소수로 선정하여 SBS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편집기술팀 한광만, 제작기술팀 김명권, 중계기술팀 임동혁 사우가 각각 선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1. 클래식 세션 녹음(이레 녹음 스튜디오, 7/3 녹음), 믹싱교육(1개월)
2. 재즈세션 녹음(이레 녹음 스튜디오, 8/21 녹음), 믹싱교육(1개월)
3. 팝세션 녹음(상암 스튜디오, 10월 녹음 예정), 믹싱교육(2개월)
4. PA세션 녹음(상암 스튜디오 11월 초 녹음 예정), 믹싱교육(1개월)
5. 또한 믹싱 교육이 5~6개월 후에 끝나면 윤정오 감독이 맡고 있는 유명 가수들의 현장 공연과 음반 믹싱 등에 1년 이상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하고,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장르 별로 녹음에서 믹싱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현재 교육 중이다. 최종 목표는 단순한 믹싱 엔지니어가 아닌 음악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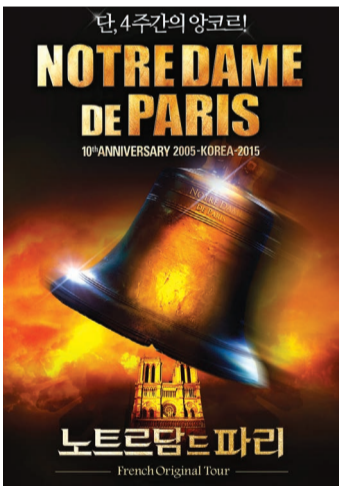
물론 세션 아티스트들은 기타리스트 함춘호를 비롯하여 톱 클래스의 뮤지션들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고 전달교육을 통해 SBS의 음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PD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 받은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믿고 프로그램에서 경험과 실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맡겨 주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쌓은 기술과 감각을 발휘하여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교육 커리큘럼 작성에 도움주신 편집기술팀 박찬호 차장과 교육에 쓸 수 있도록 멀티 음원을 확보해 주신 신정관 부장과 박성훈 차장, 교육 장비를 지원해 준 기술기획팀 김석일 씨에게 감사드린다.

-기획본부 제작리소스팀 최영균 부장

공연 · 전시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뮤지컬 신드롬의 주역 10년 만의 내한



- 10월 10일(토)~10월 11일(일) 용인 포은 아트홀
- 10월 15일(목)~11월 15일(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11월 19일(목)~11월 22일(일) 부산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 11월 27일(금)~11월 29일(일)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 12월 4일(금)~12월 13일(일) 대구 계명아트센터

올 2월 내한했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오리지널팀이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또다시 한국을 찾아 전국 투어 공연을 펼친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2005년까지 프랑스 내에서만 400만 관객 동원

원, 1999년~2001년 캐나다에서 270회 공연과 50만 관객 동원, 2000년 영국 웨스트엔드 영어 버전 초연으로 60만 관객 동원, 2005년 한국 초연 당시 8만 관객 동원과 세종문화회관 최단기간 최다 입장객 기록, 2005년 한국 앵콜 공연 당시 11만 관객 동원과 세종문화회관 최단기간 최다 입장객 기록 경신 등 공연을 하는 곳마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05년 내한 공연은 그해 뮤지컬 전문가 10인이 뽑은 최고의 작품에 올랐으며, 아름다운 노래와 아크로바틱, 탄탄한 무대 구성은 국내 뮤지컬 시장에 프랑스 뮤지컬 바람을 일으켰다.

이번 공연도 한국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온 맷 로랑이 다시 콰지모도 역을 맡는다. 그랭구와르 역의 리샤르 샤프레스트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뮤지컬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Les Temps des Cathedrales)'의 감동을 다시 전해주는 것은 물론, 앙코르곡으로 거듭 불려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중년의 매력을 지닌 배우 로베르 마리엔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교 프롤로 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십계>와 함께 프랑스가 자랑하는 3대 뮤지컬이다. 마침 11일(일)까지 내한공연을 갖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팀 공연에 이어지는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팀 공연은 프랑스 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SBS 스포츠

아시아 최초 인천 개최 '2015 프레지던트스컵' 생중계



SBS와 SBS골프는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출몰하는 꿈의 대회 '2015 프레지던트스컵'을 동시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6일간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GC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5 프레지던트스컵'은 개최국의 현직 수반, 또는 전직 수반이 명예대 회장을 맡는 권위 있는 격년제 대회로, 남자 골프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의 대륙 간 골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특히 올해 대회는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려 골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던 스피스, 제이슨 데이 등 세계적인 골퍼들이 인천에 모였으며, 배상문이 인터내셔널팀 대표로 출전 중이다.

이와 같이 각 장르 별로 녹음에서 믹싱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현재 교육 중이다. 최종 목표는 단순한 믹싱 엔지니어가 아닌 음악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